

양육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제상식



김 정 주 교수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농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경험 많은 농업경영자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초기에는 기술자가 되기에 열심이 다다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자가 되고 난 뒤에는 경영자가 되기에 열심이고 그리고

나서는 정책 입안자가 되려고 노력함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결국 “기술자 -> 경영자 -> 정책자”의 과정을 거쳐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예를 우리는 자주 본다. 기술을 모르는 경영자가 있을 수 없듯이 경영을 모르는 기술자도 의미가 없다. 결국 기술 못지 않게 경영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몇가지 경영, 경제 상식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다.

1. 소득과 조수익

흔히 “귀하의 연간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

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그런데 소득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소득은 일정한 기간에 벌어들인 조수익(또는 조수입)중에서 그것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 즉, 총경비를

차감하고 난 잔액을 의미한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양육업으로부터 얻은 총수익에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한 경영비 즉, 실제로 지불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과 고정자산(건물, 기계, 시설 등)의 감각상각비를 합한 비용을 차감한 것이 바로 소득이다. 따라서 조수익이란 자가(自家) 소비된 부분까지를 포함한 생산물 수익의 총액이요, 경영비에는 비용의 합계 중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즉, 자기토지, 자기자본, 자기노동력에 대한 사용대가는 비용으로 간주하

지 않은 상태의 비용을 의미한다. 결국 소득은 경영자가 제공한 토지, 자본, 노동력 그리고 경영기술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육업의 경우 연간 녹용 판매대전과 자육 판매대전(만일 자육을 판매하지 않고 육성용으로 키우고 있다면 그 환산금액)을 합한 것이 양육업의 조수익이 되고 이러한 조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영비는 사료비, 고용 노임, 수도광열비 등 현금 또는 현물로 지출되는 비용에다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합한 것이 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은 소득율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조수익에 대한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만일 양육업의 소득율이 40%라면 벌어들이는 조수익 중에서 40%는 소득이 되고 나머지 60%는 경영비에 해당됨을 뜻한다. 그러나 이윤율이나 마진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 소득 = 조수익 - 경영비
- 조수익 = 녹용 판매대전 + 녹용자가 소비분 평가액 + 녹용재고 평가액
- 경영비 = 현금지불비용의 합 + 현물지급 평가액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액
- 소득율 = $\frac{\text{소득}}{\text{조수익}} \times 100$

2. 생산비와 경영비

경영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금 또는 현물로 지불한 비용에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생산비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불한 비용은 물론 비용으로 지불하지 않았어도 지불한 것이나 다름없는 비용까지를 포함한 비용의 총합계이다.

즉 경영비에다가 경영자 자신이 제공한 자기소유 토지, 자기노동력 및 자기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까지를 비용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비용의 총합인 것이다. 양육경영의 예를 들면 녹용 생산비는 녹용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이외에 녹용 생산에 제공된 자기 토지 및 자본에 대한 이자와 자기 노동력을 노임으로 환산한 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square \text{ 생산비} = \text{경영비} + \text{자기자본이자} + \text{자기토지에 대한 지대} + \text{자기노동력에 대한 노임}$$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자 자신이 제공한 생산요소의 평가방법이다. 비료, 고용노임, 임차료, 차입금 이자 등과 같이 시장가격이 있거나 사전에 계약된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별 문제는 없겠으나 자기소유 토지나 자기자본 및

자가노동력의 평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토지, 자본, 노동이라도 그 용도가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같은 토지라도 어떤 토지는 사료 재배 이외에는 쓸모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토지는 이웃 농가에 빌려주어 임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은행에 예금할 재주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증권투자, 사채놀이 등으로 은행 예금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같은 노동력이라도 사슴 기르는 일 아니고서는 별 재주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양록을 경영하는 일 이외에도 회사에 취직할 수도, 공무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같은 자기소유 토지, 자기자본, 자가노동력이라도 그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일이 모든 경우를 적용해서 서로 다르게 비용을 평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어느 생산요소를 사용한 경우라도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독자들은 농산물의 생산비를 계산함에 있어 계산하는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추곡 수매가를 놓고 서로 다른 인상을 주장하는 일을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군가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처럼 자기소유 생산요소에 대한 평가부터 다분히 주관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란 『어떤 재화를 하나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그 재화를 차선의 어떤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희생된(기회를 놓쳐버린) 편익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얼핏 듣기에 상당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 말한 자기소유 생산요소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자기소유 토지를 양록사육에 사용하는데 대한 비용은 이웃 농가에게 빌려주어 얻을 수도 있는 임대수입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한 양록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월 15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슴을 사육하고 있다면 이 농장주의 노동력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 150만원이 된다. 왜냐하면 양록업을 경영함으로써 회사에 취직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또 사슴 기르는 일 이외에 별 재주가 없는 한 양록인이 있다고 하자. 만일 그가 농업을 그만 두면 남의 양록농장에서 풀팔이밖에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므로 이 사람 노동력의 기회비용은 그 지역의 농업 노동 노임이 된다.

이처럼 자기소유 생산요소는 기회비용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노동력의 경우 그 지역의 평균노임을 자가노동력에 대한 비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경



영자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기회비용을 이해하였다면 경영자의 일상계획이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양육농민 교육에 참여한 양육업자가 농민 교육을 받는데 드는 실질비용으로는 차비, 식대, 교재대 등이 있고 기회비용으로는 경영자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일을 못하게 되어 입게 될 수입의 감소를 환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교육비용 중 기회비용은 천차만별인 것이다. 결국 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에 따라 비용은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이다. 경영자는 언제나 머리 속에 이 기회비용 개념이 박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어느 경영자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따름일 것이다.

4. 수확체감 현상

농업생산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불리한 이유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되기 때문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10kg 사료를 먹이면 1양의 녹용이 생산되고 20Kg을 먹이면 2양의 녹용이 생산된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200Kg을 먹여서 20양의 녹용이 생산된다면 양육업도 꽤 신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생산요소의 투입에 비례해서 생산물이 증가 생산되지 않고 생산요소 투입 수준이 어느 단계를 넘으면 투입에 따른 산출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여 급기야는 아무리 사료를 더 먹여도 녹용은 증산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수확체감의 현상이다. 이러한 수확체감의 현상의 예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비료를 채소에 투입하면 채



소가 증산될 수 있으나 어느 단계를 넘으면 아무리 비료를 증가 투입해도 채소의 증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대상으로 한 투입의 효과는 추가적으로 투입이 이루어져도 추가적인 생산량은 점차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종농업이나 축산업(양육업)은 그 대상이 살아있는 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되고 따라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불리한 것이다. 그렇다고 공업생산에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은 아니다.

공업생산에서도 기계가 하는 일은 몰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수확체감과 대조되는 말로서 수확체증이 있다. 이는 추가적으로 투입한 생산요소에 대한 추

가적인 산출량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으로서 이렇게 되면 생산자는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된다. 그러나 경종 농업이나 축산업(양육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거나 생산요소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으나 소득 또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생산활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이나 축산업의 생산활동은 거의 다 수확체감현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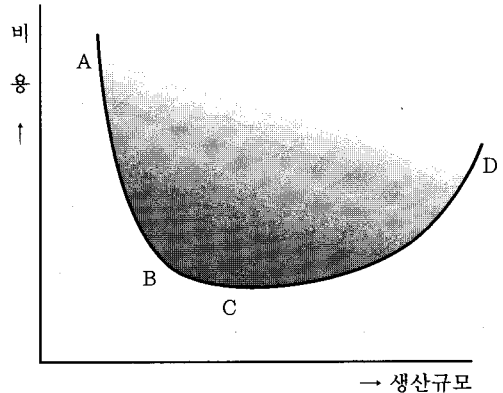
5.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확대할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 진다는 말이다. 모든 생산활

동은 생산시설 등 크고 작은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비용은 생산량의 대·소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성질이므로 가능하면 주어진 고정생산요소를 변동합이 없이 규모를 확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되어 결국 생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사슴을 키우는 사슴목장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만일 고정 목부 2명과 대형 트랙터 1대, 30두용 축사 1동, 제각기 1세트 등 고정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록 10두를 키우는 경우와 30두를 키우는 경우의 평균 비용은 같을 수가 없다.

즉, 30두를 사육할 때 평균비용이 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나 30두를 초과하여 40두를 사육한다면 30두 사육시 보다 오히려 평균비용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10두를 위하여 목부도 한 명 더 채용하여야 할 테고 축사도 한동을 더 지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효과는 무조건 규모를 확대할 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에 이르기까지는 유리해지다가 일정한 점을 넘으면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사슴 몇 두를 사육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 것인가를 안다면 농가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 농가의 사정이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전국적이나 지역적인 평균치는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즉 다음



〈그림 1〉 평균 비용곡선

〈그림 1〉에서 평균비용은 마치 영어의 U자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므로 평균비용선의 최저점을 찾는 일은 간단한 수학으로 풀 수 있다. 아마도 수학으로 풀기 전에 경험이 많은 농장 경영자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규모를 직감으로 알 수는 있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는 바로 이러한 비용곡선의 성질 때문에 생기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대규모 사육이 가능한 양계나 양돈은 소수의 기업적 축산이 독점력을 행사할 여지가 비교적 크지만 가축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양록이나, 낙농, 조사료 조달 비용이 많이 드는 비육우사육은 규모를 확대하기가 어려워 결국 규모의 경제성이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6. 이윤과 유통마진

이윤과 마진을 혼돈하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우선 정의부터 내려보자. 이윤은 조



수익에서 총비용(즉 생산비)을 차감하고 남은 나머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뺀 순전히 경영자의 경영 능력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반면 마진(Margin)은 생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의 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윤과 마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여 유통마진 속에 유통종사자의 이윤은 물론 수송비, 상하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코 이윤과 마진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농축산물의 유통 참여자가 많을수록 저마다 이윤을 남기려 하기 때문에 이윤의 규모도 커져서 결국 유통마진은 커질 수밖에 없다.

7. 물가지수

물가지수는 물가의 전반적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하나의 지표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격수준도 천차만별하다. 10원짜리 편이 있는가 하면 200만원짜리 경운기도 있다. 따라서 10원짜리가 15원으로 인상된 것과 200만원짜리가 210만원이 되는 가격 변동을 직접 비교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상품의 기준년도 가격을 무조건 100으로 보고 해당년도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었는가를 따져 보는데 필요한 지표가 물가지수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물가지수는 199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격에는 소매가

격과 도매가격이 있으므로 물가지수에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도매물가지수가 있고 농축산물 판매자와 농용 자재 구매자의 입장에서 본 농가판매 가격지수와 농가구입 가격지수가 있어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1998년 축산물 농가판매 가격지수가 124.8이라면 이는 1995년의 축산물 가격을 무조건 100으로 보았을 경우 1998년에는 124.8이 되어 결국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이 3년 사이에 24.8%만큼 상승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8. 경상가격과 불변가격

경상가격이란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시장가격을 말하는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화폐액으로 나타낸 가격이다. 예를 들면 쌀 80Kg 한가마니 소비자가 가격이 1995년에 10만원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12만원이었다면 이 가격들은 경상가격을 의미한다.

불변가격이란 어떤 시점의 가격에서 물가변동요인을 제거한 가격이다. 앞의 예에서 1995년을 기준한 1998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30정도 될 것이므로 1998년의 12만원을 1995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92,300(120,000 \div 130 \times 100)$ 원이 되어 1995년의 쌀값과 1998년의 쌀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5년 사이에 쌀값은 오히려 내린 셈이다. **한국양곡**

〈다음호에 계속〉